불교는 선(禪)의 체험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종파로서 탄생시킨 것이 중국의 선종(禪宗)이다. 특히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 등 중국 6대 선사들의 선 체험은 화두를 참구해 깨달음에 이르는 한국불교 조계종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무궁무진한 소재가 돼 왔다.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까지 선의 발자취가 새겨진 중국 선종 사찰 탐방이 최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주최로 이뤄졌다. 탐방기를 2회로 싣는다.

◇중국의 오악(五岳)중 하나인 쑹산 오유봉 능선에 건립된 달마 좌상 옆에서 1500년의 세월을 거슬러 한국에서 온 제자들이 달마 스님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여념이 없다.

중국 선종사찰 탐방 ㊤

선종의 발상지 소림사·이조암·삼조사

"내면을 보라"는 달마의 가르침 들리는 듯

초조 달마부터 육조 혜능까지 禪의 원류 찾아 2400㎞ 순례

"달마 선사가 불안을 씻어줌으로써 2조인 혜가 스님을 깨치게 했다면, 혜가 스님은 3조 승찬 스님의 죄의식을 벗겨줌으로써 해탈의 경지로 이끌었지요. 승찬 스님은 4조 도신 스님의 구속감을 벗겨주었고, 5조 홍인 스님은 승찬 스님으로부터 그림자 같은 업보를 벗었습니다. 육조 혜능 스님에게 배울 것은 지혜입니다."

달마 선사 수행처 소림사가 있는 중국 허난성 덩펑현 쑹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 문경 각화사 선원장 고우(71) 스님은 순례길에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를 찬찬히 일러주었다.

이미 하루 전 허베이성 스좌좡 임제사에서 순례가 시작돼 버스는 '움직이는 법당'으로 변한 터.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마련된 중국 선종 사찰 탐방길에는 부산·대구 지역의 육조단경 간화선 수강생, 동안거 참가자 등 불자 60여명이 동참했다.

중국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어지는 2400㎞의 긴 탐방길에는 '선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10여개의 대표적 선종 사찰이 있다.

고우 스님은 지난해 전국 선원장급 스님들의 선종사찰 순례길에도 해설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재가불자들을 위해 기꺼이 안내를 자원했다. 두 대의 버스를 오가며 마이크를 잡고 육조 선사들의 선 체험을 들려주는 노선승의 불자 사랑이 가슴속까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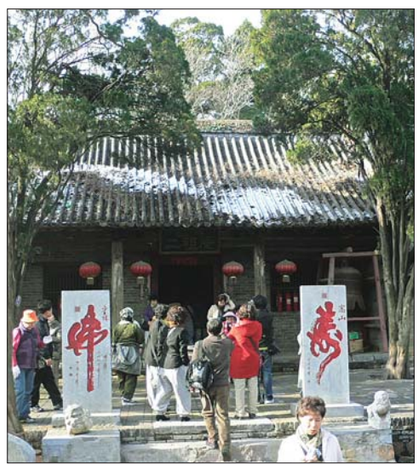
선종사찰 탐방은 달마 선사의 유적지 소림사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쑹산 소실봉 자락에 위치한 소림사는 소림무술로 유명하지만, 선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경내에는 남인도에서 온 승려 달마가 2조 혜가(487~593)를 후계자로 받아들인 입설정(入雪亭)이 있고, 1시간가량 오유봉을 오르면 달마가 9년 동안 묵언 면벽수행했던 작은 달마동굴이 중턱에 나온다.

입설정. 혜가가 달마로부터 법을 얻기 위해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잘랐다는 '단비구법(斷臂求法)'의 고어가 나온 장소가 아니던가.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안케 해주리라."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됐다. 네 마음이 없다면,
네 불안도 없느니라."

한쪽 팔을 잘라 바치는 신심을 보인 끝에 달마의 제자가 된 혜가 스님은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당시 혜가의 의식은 유아(有我)에서 무아(無我)로 섬광처럼 이동했으리라.

고우 스님은 "밖으로만 향하는 의식의 빛을 내면으로 돌려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는 회광반조(回光返照)가 바로 달마 스님의 공부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림사 서남쪽인 쑹산 발우봉에 있는 혜가스님의 수행처 '이조암'.

소림사 인근에 벽돌탑 228기로 조성된 탑림이 있고, 건너편 산자락에는 혜가의 수행처 이조암이 고색창연하게 앉아 있다. 작은 경내에는 쓴맛, 매운맛, 신맛, 단맛을 낸다는 4개의 우물이 있는데, '苦盡甘來'(고진감래·쓴맛 뒤에는 단맛이 온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는다.

순례단을 태운 버스는 창강(양쯔강)을 지나고 샛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중원을 달려 안후이성 첸산현 톈주산 삼조사(산곡사)로 접어들었다. 환영나온 젊은 콴룽(37) 스님이 방장으로 있는 삼조사는 최근에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는지 말끔하게 단장돼 유럽풍이 느껴졌다. 경내에는 3조 승찬(?~606) 스님이 입화(立化·선 채로 입적)했다는 '입화탑'이 있고, 수행처인 '삼조굴', 사리 300과 중 100과를 모셨다는 '사리탑'이 조성돼 있다.

또 승찬 스님과 4조 도신(580~651) 스님이 선문답을 주고받은 '해박석(解縛石·속박을 풀어준 바위)'이 누워 있다.

"풍질(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참회케 해주십시오."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참회케 해주겠노라."
"죄를 찾아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너의 죄는 없는 것이고,
그런고로 참회되었다."

고우 스님이 승찬 스님과 혜가 스님이 나눈 선문답을 들려준다. 혜가 스님 역시 정견(正見)을 얻어 본래 업이 없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일까. 2년 동안 혜가 스님을 시봉한 승찬 스님은 병도 낳고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숙소로 향하는 '이동 법당'에서 고우 스님은 자신도 폐병을 앓았었다고 털어놓으며 "나병을 앓았던 승찬 스님이 가장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톈주산(중국 안후이성)
정성수 세계일보기자/hulk@segye.com

◇지난달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라뿌리 역사'주제로 '상고사학회 학술회의'가 열렸다

"신라는 한반도 아닌 중원대륙에 있었다"

상고사학회 이중재 회장 주장

"신라가 한반도 경주에 도읍했다는 것은 일제 때 날조 조작된 설에 지나지 않는다. 고조선은 물론 삼한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중원 대륙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지배해 왔던 위대한 백의민족이자 배달의 자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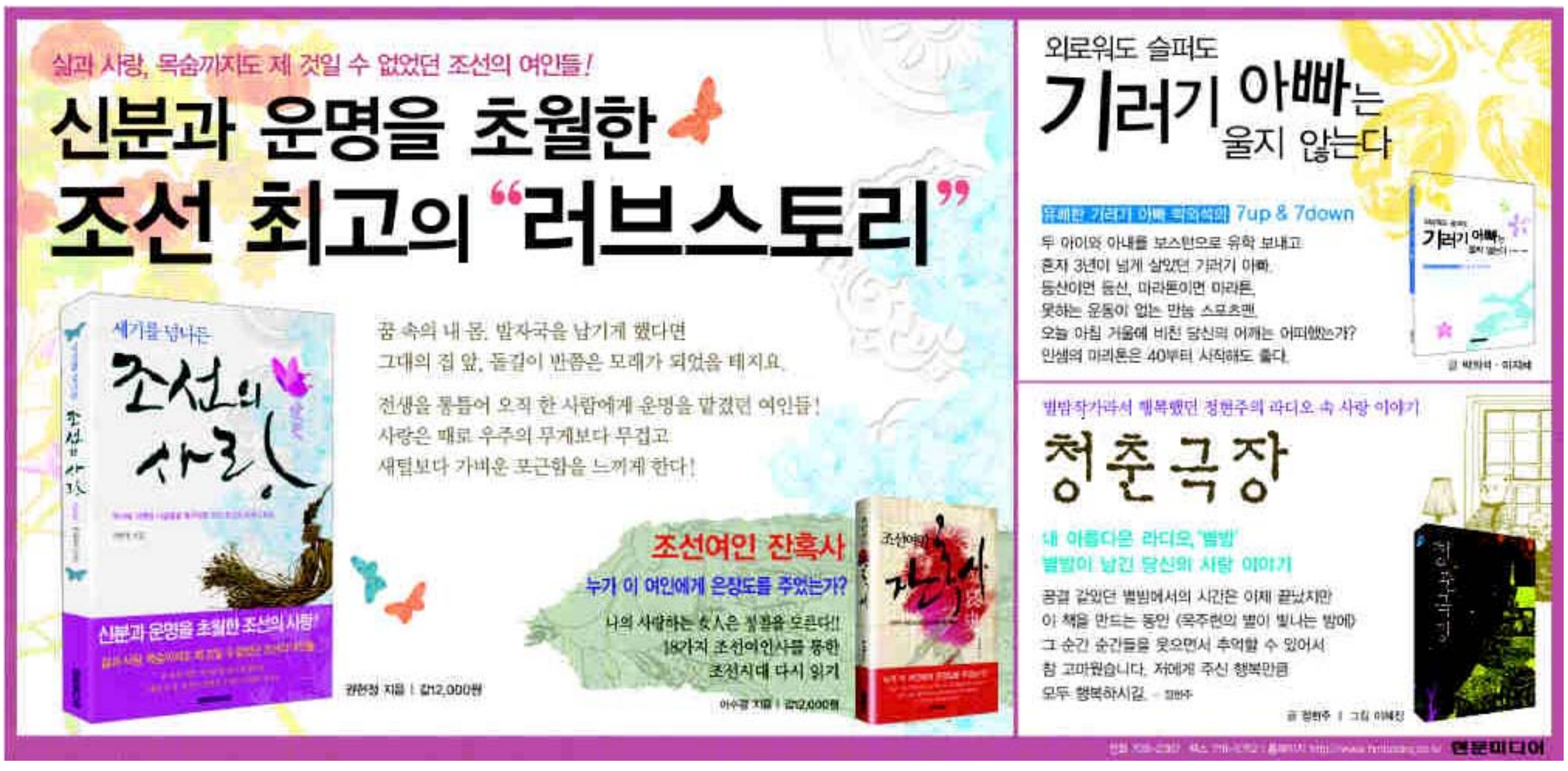
'신라 뿌리 역사(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 주제로 지난달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상고사학회 제11차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중재 회장(상고사학회)의 주장이다. 아래에 발제내용을 요약한다.

'경주에 도읍'은 일제때 조작한 것
서역과 교역… 실크로드 주인공

우리 조상들이 쓴 수많은 원전을 조사해 보면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황제(黃帝 BC.2679)의 손자인 고양씨 손녀 여수로 부터 시작해 진나라 진시황제에 이른다. 진나라가 망한 150년 후 시림에서 계림 그리고 신라로 이어진다. 다시말해 신라의 직계선조는 진시황제이고 신라의 원조상은 황제아들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이다.

신라의 혈통과 시조 그리고 건국은 모두 한반도가 아니고 중원의 넓은 대륙에서 이루어 졌음을 수많은 역사원전이 보여주고 있다. 신라 최초의 조상이 황제의 아들 소호금천씨(BC.2578)라는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 의자왕 마지막편에도 적혀있다.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륙에 있었는지에 대한 고서를 찾던 중 '유양잡조전집'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다. '유양잡조전집' 은 당나라 태종때 당나라 태상 하성식이 지은것으로 총 44권으로 되어있다. 책 1권 '지낙고상'편에 신라에 대한 비사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사는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중원대륙임을 나타내고 있다.

당나라때 태상 벼슬을 한 사람이 신라의 비서를 왜 집필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라는 넓고 넓은 중원대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고대 최초로 비단을 짜서 서역으로 교역을 한 나라가 신라이다, 다시 말해 실크로드 길을 열게한 나라도 바로 신라임을 밝히고 있다.

김진완 기자 /kjwin@segye.com